

지방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 전남 5개 시장 선거 조기 과열

3선 제한 '무주공산' 목포·광양 10명 넘는 입지자 '얼굴 내밀기'

여수·순천·나주도 벌써부터 물밑 경쟁 치열

내년 지방선거(6월4일)까지 아직 1년여가 남았지만, 전남지역 5개 시장 선거 분위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현역 시장이 3선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광양과 목포시를 비롯한 여수시 등은 10여명이 차기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일부는 벌써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목포=정종득 목포시장의 3선 제한에 묶여 무주공산이 되면서 현재 10명이 훨씬 넘는 후보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선거 조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거나 일찌감치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는 후보군은 권옥 전남도의원, 김상열 목포 신의항 주식회사 대표, 김중용 목포 경찰서 사무총장, 박홍률 목포 희망 21세기 대표, 배응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상열 변호사, 홍영기 목포비전연구소 대표 등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후보들은 시정을 비판하는 성명서와 기고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 시장과의 차별화를 피하고, 이미지와 인지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차기 시장선거를 놓고 각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여수=김충석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채 여수 경실련 공동대표, 송대수·윤문철 전남도의원,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 주철현 전 광주지검장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후보들이 물밑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오는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시장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등 일부 성과도 있지만, 8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지역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일부 후보들은 안철수 신당 창당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이성용 시장의 3선 제한에 따라 10여 명 안팎의 후보들이 차기 광양시장을 노리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김재무 전남도의원 의장과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 등 10여 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각종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를 높여가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양시 이장·통장단이 버스 후보들을 동원해 산업시설을 나서는 자리에 3~4명의 후보군들이 출발지에 나와 인사를 하는 등 조기과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순천=조종훈 순천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도선 전남도의원, 김대희 순천시의회 의장,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 의장, 허정민 전 박준영 전남지사 정부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 순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이수근 통합진보당 후보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순천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만큼 우선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진보당 후보의 약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민주당 순천·곡성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지역 조직을 그동안 갖고 뛰어온 만큼 노 위원장의 입김도 상당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임성훈 나주시장이 미래산단 추진과정 중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차기 시장직을 노리는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나도팔 전남도 자연환경연수원장과 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광형 전 나주시시장, 정순남 전 전남도 경제부시장,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만약 임 시장과 신정훈 전 시장의 나란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실상 '리턴매치'가 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배임죄로 도중하차해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신 전 시장을 대신해 부인인 주향숙씨가 출마했으며, 임성훈 시장과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임 시장에게 석패했다. 이광형 전 나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완

주했다. /최관일기자 cki@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산단 사고 대비 훈련

7일 여수산단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실시된 현장 훈련에 참가한 소방차들이 시원스럽게 물을 뿌리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55개 기관 200여명이 참가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17조 추경 통과... 상임위서 반영 지역 5개 현안 결국 누락

'5% 과징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는 7일 밤 본회의를 열고 2013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주목받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TU법' 등의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우선 예결특위를 넘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세입

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총액이 각각 유지됐다. 세출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약 5000억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다. 앞서 추경예산 관련 11개 상임위가 2조원 이상 증액시킨 것을 감안하면 상임위별 증액요구의 4분의1 정도가 반영된 셈이다.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렵게 반영된 광주·전남의 5개 현안사업 예산도 누락됐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예산 70억원 등 7개 사업에

당초 정부예산안(105억원)보다 90억원이 늘어난 195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예초 1900억원을 건의했지만 송현~남평간 국지도 건설사업 등 9건 480억원만 확보됐다.

국회는 또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수정안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제도를 1년 늦춘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시기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늦춘 것이다.

반면,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얼어죽을 '경제민주화'냐?!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수도권 내 불균형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화로 고통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과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책간담회' 기구 마련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시종 총복지사와 이낙연·노영민·정갑윤 의원,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 의장단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공동대응 나섰다

균형발전 실현 촉구 회견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회의 의장단 모임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정

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최근 재입법 예고를 하면서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자 연보전권역까지 4년제 대학과 산업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려 한다"며 "이는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30일 상정하기로 했던 국무회의 안건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정부는 시행령·규칙·지침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의해 결정될 수

NEW THINKING.
HYUNDAI NEW POSSIBILITIES.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H-Premium Concert

베토벤, 교향곡 5번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_클라라 주미 강)

2013. 5. 19(일) 오후 4시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협찬 현대자동차 주관 stage one
티켓 VIP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780-5054 예매 인터파크 1544-1555